한화,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 진출

원루프에너지 지분 800만달러에 인수 … 크리스탈솔라 지분 일부도

한화그룹이 미국 태양광기업의 지분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는 미주법인인 한화인터내셔널이 최근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리스(Leas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루프에너지(OneRoof Energy)의 지분 일부를 8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9월22일 발표했다.

원루프에너지의 지분 인수를 통해 미주지역 주택용 태양광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루프에너지는 일반 주택의 루프(Roof)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9월 초에는 한화케미칼이 미국의 태양광 기술 벤처기업인 크리스탈솔라(Crystal Solar) 지분 일부를 1500만달러에 인수했다.

한화는 2010년 8월 세계 4위의 태양전지 모듈 생산기업인 중국 솔라펀파워홀딩스를 인수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4월 태양광발전 사업을 펼쳐나갈 한화솔라에너지를 설립하는 한편 폴리실리콘(Polysilicon) 1만톤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2>